

사회학에 대한 일반적리해

정 만 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당면하여 응용사회학을 비롯하여 우리의 혁명실전에 필요한 분야들을 우리 식으로 개척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것만큼 철학, 인구학, 심리학, 교육학, 정치학, 법률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다른 모든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을 연구한다.

사회학과 그밖의 사회과학분야들은 연구대상의 공통성으로 하여 비교적 쉽게 교차침투되고 서로의 이론적성과들을 주고받게 된다. 사회학이 출현하여 지금까지 교육사회학, 정치사회학, 인구사회학, 노동사회학, 도시사회학 등 수많은 분과사회학들이 나오게 된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다.

그러나 사회학과 그밖의 사회과학들은 자기 고유의 사회현상을 연구하는것으로 하여 학문적으로 명백히 구별된다.

사회학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사회학과 사회력사관과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그것은 사회학과 사회력사관이 다같이 사회를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것으로 하여 많은 류사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회학과 사회력사관의 학문적류사성으로 하여 지난 시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맑스주의유물사관을 사회학과 같이 보면서 사회학자체를 부정하였는가 하면 맑스주의유물사관을 《일반사회학》이라고 하면서 사회학에 해소시켰으며 그것을 사회학의 원론적부분이라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량자가 동일한 학문이라고 하는 《동등론》도 주장하였다. 이것은 사회학과 사회력사관과의 관계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다.

물론 맑스주의창시자들은 유물변증법적립장에서 사회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 사회구조와 체계, 각이한 사회현상들과 사회관리사이의 호상관계와 사회의 변화발전과정 등 사회학과 관련된 귀중한 견해들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존재가 사회의식을 규정하며 사회의 발전은 생산력성격에의 생산관계의 적응의 법칙에 의한 생산방식의 교체의 력사이라는 유물사관의 기본원리를 발견함으로써 과학적인 사회학발생과 연구의 리론적 및 방법론적기초를 마련하였다.

맑스주의유물사관은 생물학주의, 심리주의, 형식사회학, 사회학주의, 리해사회학 등 온갖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부르쵸아사회학조류들을 타파하고 사회학을 과학적인 토대 위에 올려세울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맑스주의유물사관은 어디까지나 사회력사에 대한 과학적인 세계관이며 근로대중을 자본주의를 매장하기 위한 혁명투쟁으로 불려일으키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다. 그러므로 맑스주의유물사관과 사회학은 명백히 구별해보아야 한다.

사회력사관이 사회의 본질과 사회적운동, 력사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연구한다면 사회학은 주로 사회의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관리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조건과 환경, 체계의 고유한 법칙을 연구한다.

사회력사관이 사회학이 자체내에 담고있는 각이한 사회과학적지식들에 대한 개괄이

고 일반화이라면 사회학에는 그러한 수준에서의 개괄이나 일반화가 없다. 사회학은 사회력사관에 기초하여서만 옳은 방향에서 기타 사회과학들의 이론적성과를 개괄하고 일반화할수 있다.

사회력사관이 전체로서의 사회를 연구하는데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세계관과 방법론을 준다면 사회학은 사회를 연구하는 고유한 관점과 연구방법을 준다.

부르조아사회학이 사회를 자연과 동일시하고 사회에 작용하는 불변한 자연법칙을 찾는것을 사회학의 사명으로 보면서 극심한 사회경제적모순으로 하여 멸망의 위기에 빠져있는 자본주의사회를 자연계와 같이 균형과 조화가 보장된 발전된 사회로 미화분식하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사회학으로 전락된것은 생의 철학과 주의설, 실증주의와 인본주의, 실용주의와 같은 주관관념론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사상에 바탕을 두고있기때문이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밝힌 철학적원리는 옳바른 사회력사관확립의 기초원리이다. 사람을 단순한 자연적, 생물학적존재로 본다면 사회를 생물학적존재들의 결합체로, 사회적운동을 객관적인 자연법칙에 따르는 자연발생적인 운동으로 해석하게 된다.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은 오직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라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할 때 과학적으로 해명될수 있다.

주체의 사회력사관, 주체사관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밝힌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회는 사람들이 사회적재부를 가지고 사회적관계로 결합되어 생활하는 집단이며 사회의 주인은 다름아닌 사람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력사를 창조하고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사회력사원리,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하였다. 이것은 진보적인 사회학, 인민대중중심의 사회학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기초로 된다.

사회학은 이처럼 사회력사관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기초로 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게 된다.

다른 한편 사회학은 사회력사관을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한다.

사회구조와 사회집단, 사람들의 다양한 련관과 교제과정을 비롯하여 사회현상들에 대한 사회학적분석과 이론적성과는 사회와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새로운 원리와 내용들로 풍부히 할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밑천으로 된다.

사회학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사회학과 기타 사회과학들과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그것은 사회학뿐만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력사학, 국가관리학, 교육학, 심리학, 법률학 등 기타 사회과학들도 사회의 관리와 발전을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연구하기때문이다.

사회학은 정치학, 경제학 등 개별과학들과는 달리 사회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사회학이 해명하는 사회의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관리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조건과 환경, 체계의 고유한 법칙은 사회전체, 전체와 그 구성부분 그리고 각이한 부분, 각이한 부류사이의 호상관계와 련관되어있다. 그러므로 사회학은 전체로서의 사회와 그 개별적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연구분석한다.

그러나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법률학 등 개별적인 사회과학들이 연구하는 대상은 일정한 령역이나 부분으로 개별화되어있다. 정치학은 정치의 본질과 그 발생발전의 합법

칙성,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정치적문제들을 연구하며 경제학은 경제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밝히는것과 함께 경제의 매개 부문, 경제생활의 매개 측면의 고유한 특성과 여기에서 작용하는 합법칙성을 연구한다. 그리고 심리학은 인간심리의 본질과 발생발전의 합법칙성을 연구하며 법률학은 국가 및 법률제도들과 그 발생발전의 합법칙성, 국가와 법에 관한 사상, 견해들을 연구한다.

이처럼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법률학 등 사회과학들은 사회의 일정한 영역이나 부분, 부류내부의 법칙과만 관계되어있는 과학분야들이다.

사회학은 사회를 포괄적으로 연구할뿐만아니라 기타 개별적인 사회과학들에서 다루는 대상들도 취급하게 된다.

그러나 비록 동일한 대상을 연구한다고 해도 사회학은 사회현상을 자기 고유의 방향에서 받아들이는것만큼 고유한 원리와 내용으로 전개되게 된다.

사회학과 기타 사회과학들과의 이러한 관계로 하여 지난 시기 적지 않은 부르쥬아사회학자들은 사회학을 유일한 사회과학으로 보면서 이여의 사회과학들을 무시하였는가 하면 사회학이 마치도 개별적인 사회과학들의 성과를 종합한 학문이라는 그릇된 견해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프랑스의 부르쥬아사회학자인 콩트와 스펜서를 비롯한 초기부르쥬아사회학자들은 사회의 각이한 분야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있기때문에 사회학은 사회의 모든 지식을 섭취하고 종합한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콩트에 의하면 과학은 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사회학의 체계로 분류되며 사회학은 사회에 대한 유일한 과학으로 된다. 스펜서의 경우에도 사회학과 심리학, 료리학외에는 어떤 사회과학도 없었으며 오직 사회학만이 사회현상전반에 걸치는 포괄적인 기본과목으로 되어있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견해를 같이하면서 사회학이 개별적인 사회과학들의 성과의 종합으로 구성되는 백과전서적인 학문이라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회과학의 성과를 기계적으로 종합하는것으로써는 사회학이 성립될수 없다. 사회학은 개별적인 사회과학들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도 그에 고유한 연구방향에 따라 전개되고 체계화된 독자적인 과학분야이다.

사회학은 력사학, 국가관리학과 같은 사회과학들과도 구별된다.

사회학과 력사학, 국가관리학은 종합적인 과학이라는 공통성을 가지지만 각각 자기 고유의 방향에서 사회를 연구하며 따라서 학문상 서로 다른 지위에 놓이게 된다.

력사학은 개별적인 종족 또는 민족, 일정한 사회제도와 국가 그리고 사회의 개별적인 부분들, 우주와 지구, 동식물을 비롯하여 사람과 사회, 자연의 운동, 변화, 발전과정을 연구한다. 력사학은 넓은 의미에서 자연의 력사와 사회의 력사를 다같이 연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류사회의 구체적인 운동, 변화,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수 있다. 력사학에 의하여 원시공동체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류형의 사회들의 면모와 변화발전과정이 밝혀지고 사회생활의 구체적인 분야들과 사람들의 풍습과 전통, 사상과 문화, 지역과 인구변동 등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가 주어진다.

그러나 력사학과 사회학은 학문상 커다란 차이를 가진다.

력사학과 사회학의 학문상차이는 첫째로, 력사학이 지나온 사회를 연구하기 위하여 과거에로 낯을 돌린다면 사회학은 사회에 대한 연구를 현재와 미래에서 진행한다

다. 둘째로, 역사학이 매개 사회의 발생과 소멸, 변화발전의 과정 그리고 당대의 구체적인 사회상을 연구한다면 사회학은 사회의 관리운영과 발전을 위한 원리와 방법론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사회학은 현존하는 각이한 사회들을 연구분석하며 그를 통하여 당대 사회의 관리운영과 발전을 순조롭게 보장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론을 해명한다.

사회학과 가장 유사한 학문은 국가관리학이다. 사회학과 국가관리학은 사회의 관리운영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하여 사회를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그러나 사회학과 국가관리학의 연구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국가관리학은 국가관리, 사회관리를 주로 사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고 정치적령도를 실현하는 당과 주권적, 행정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로선, 정책작성과 그 실현을 위한 이론실천적문제들을 연구한다면 사회학은 사회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한 조건과 환경, 체계의 고유한 법칙과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연구한다.

이처럼 사회학과 역사학, 국가관리학은 종합적인 과학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원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구별되는 독자적인 과학분야들이다.

우리는 사회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사회학학문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보다 발전시켜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